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올롱가포)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Times-SLC)	기간	2018.6.30.(토) ~ 2018.7.27(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저희가 파견간 곳은 필리핀 수빅에 위치한 Times-SLC라는 바탄반도주립대학의 공식 어학센터로 수영장과 식당 1개, 그리고 강의실과 기숙사가 한 건물 내에 있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있어 기숙학원과 같은 분위기를 하고있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수업은 1대1 4시간, 그룹스터디 4시간으로 진행되며, 50분 수업 10분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수업은 아침 8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1대1 수업은 한평 크기의 룸에서 선생님과 1대1로 수업을 진행하며, 그룹스터디는 좀 더 넓은 룸에서 수업합니다. 반은 첫날 레벨테스트를 통해 나타난 성적 순대로 6개 반으로 나눠서 진행했으며 과제 및 시험은 선생님 재량이었습니다. 대체로 선생님들은 수업준비를 매우 철저하게 하였고 1대1의 경우 직접 activity도 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업은 전반적으로 아주 재밌었고 영어로 오랫동안 말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는 4주차를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5시 사이에 진행했으며 1주차때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2주차때는 재밌는 게임을 하는 시간을, 3주차때는 영화감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주차 졸업식 이틀 전에는 체육대회가, 그 다음날에는 BBQ Party를 했습니다. 이 외에 주말에는 Anvaya cove와 마닐라 투어를 갔었는데 각각 수영복과 간편복장이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기상여건상 요트투어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BBQ Party를 제외한 모든 Activity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따로 추가비용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 Free time에는 점호시간 내까지 외출을 하거나 어학원 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필리핀에서 7월은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옵니다. 따라서 우산이나 우비, 그리고 운동화가 젖지 않게 샌들이나 슬리퍼가 꼭 필요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어학원이 위치한 SLC 주변지역과 수빅 Bay의 SBFZ 내에는 안전한 편이었으나, SBFZ 밖의 올롱가포 시내쪽으로 나가면 큰길 주변에 있는 작은 골목길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일행으로 움직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숙소는 어학원 내에 위치한 기숙사를 이용했으며 에어컨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다음날 수업이 있을 경우 10시까지, 없을 경우 12시까지 외출규정을 지켜주면 되고 스터디룸 한군데에서 공부를 하거나 배달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벌레가 들어올 수도 있고 와이파이가 잘 안터지므로 이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 () 외부식당 (O)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식사는 주로 어학원 내 식당을 이용했으며, 저녁마다 가끔 시내로 나가서 바깥의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어학원 내의 식당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교통은 주로 FB를 이용하였으며 택시도 있지만 미터기를 쓰지 않고 흥정을 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 가격흥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FB를 이용할 경우 이용객이 많이 있으면 14페소로 시내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올롱가포 시내에선 지프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7,000 (원)	출국 전 사전 납부
현지 식당이용, 쇼핑 등	\$300	환전 후 이용
기념품 및 선물용품 구매	10,000 페소	국내에서 미리 페소로 환전 후 이용
합계	약 25,000페소	환율이 낮을 때 미리 환전한 것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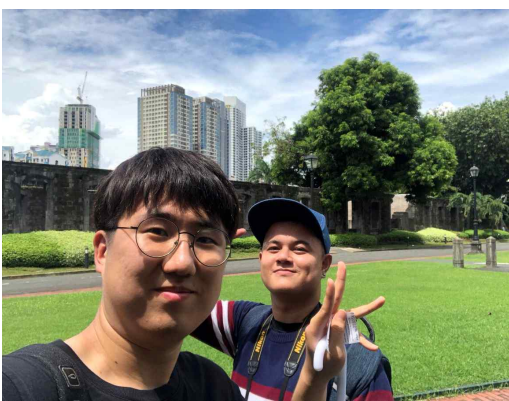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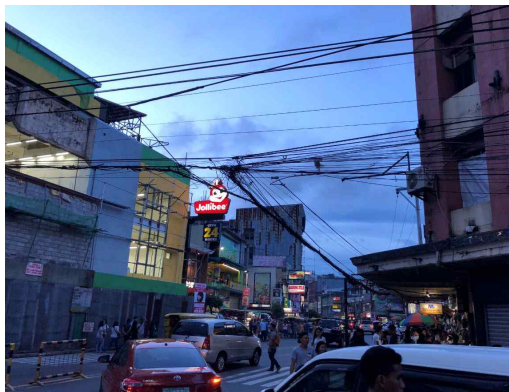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전에 일단 어학연수가 확정되면 반드시 달러를 비롯한 외화시세를 수시로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학연수 합격 이후에 얼마 안가서 600달러와 10000페소를 일찍이 미리 준비했는데(필리핀 현지에선 300달러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달 뒤에 달러환율이 강세로 전환되어 필리핀 현지에서 페소로 환전할땐 약 2만원 정도 금액이 더 생겼습니다. 필리핀에선 쇼핑할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 돈을 쓸 일이 많지 않으므로 본인의 소비 스타일에 따라 적당히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 처음 도착하면 신체가 현지음식 또는 물에 적응하기 위해 물갈이를 할 수도 있어 처음에는 생수이용을 반드시 권장하며 물갈이를 대비하여 감기약 외에 설사약이나 복통약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견을 가는 해당 지역의 정보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고 가시는 것도 적극 추천하며 비가 올 것을 대비하여 우산, 샌들을 준비하고 수영장에서 놀 수 있도록 수영복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생필품들은 무게만 차지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고 현지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국하기 직전에 짐을 최대한 줄여서 가지고 오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4학년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 뒤늦게 영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영어공부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으로 필리핀 단기어학연수에 지원하여 한달간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늦게 지원한 탓에 함께 갈수 있는 친구도 없이 혼자서 파견을 가게 되었고 처음엔 어학원의 선생님들은 물론 같이 간 학생들과도 너무 어색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학생들과 금방 친해지고 선생님들과도 친해져서 4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버렸고 나중에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처음 도착하자마자 아침에 바로 레벨테스트를 봤고, 이를 통해서 성적 순서대로 수준에 맞는 수업이 배정되어 수업은 1대1 4시간 그룹스터디 4시간이 각각 섞였습니다. 저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1대1과 그룹스터디가 2시간씩 골고루 섞인 시간표가 짜여 비교적 힘들지 않고 재밌게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어학원의 선생님들과, 수업 이후에 시내로 나갔을때는 필리핀 현지인들과 영어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으면서 저는 필리핀 마닐라나 세부와 같은 유명관광지가 아닌 필리핀 현지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작은 도시를 한달간 체류하는 과정에서 둘러보면서 그들의 생활방식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곳에서 잠시 만난 필리핀 현지인 또는 타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처음엔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제가 방문한 지역은 오히려 치안이 매우 양호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덕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Activity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초반엔 Activity가 흥미있게 진행되지 못했으며 영화감상은 시간이 아까웠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기대했던 요트 투어가 기상여건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되지도 못한 채 취소된 것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어느 정도 향상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조만간 새롭게 토익, 토익스피킹 시험을 볼 계획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서둘러서 다른 어학시험 공부에도 매진할 생각입니다. 또한 제 전공과목은 영어를 많이 요구하는 만큼 전공공부를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Subic Bay 앞에서	Ace Teacher와 함께! (마닐라 투어 중)
	
마닐라 리잘파크 내 한국-필리핀 추모와 평화 기원의 탑에서	Olongapo 시내 거리
	
Anvaya Cove에서!	1대1 선생님들과 함께!